

2013년 5월 12일 일요일.

10329 홍형석

동쪽에서 아침 햇살이 밝아올 때 나는 눈을 떴다.

나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.

어제 밤 늦게까지 TV를 봤더니 평소보다 몸이 더 피곤한 것 같았다.

하지만, 난 하복을 사러 가야 했기에 나에게 물려온 장들을 떨쳐내고,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.

~~한번~~ 씻고 나오니, 몸이 한결 가벼웠다.

~~한번~~ 가족들이 다 씻고 나을 동안, 기다리고 있는데, 또 다시 잠이 나에게 물려왔다.

나는 겨우, 몸을 이끌고 ~~하복~~ 하복을 사러갔다.

하복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였다.

핑크, 흰색, 곤색, 나는 곤색이 제일 좋아 나는 것 같아서 곤색만 2벌 사려 했지만,

똑같은 색만 2벌 사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곤색과 흰색을 한벌씩 샀다.